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2008년 5월 22일)

주제: 최근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전망

발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토론: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전 국방연구원 원장)

<발제>

■ 김정수 국장

오늘 사회를 보기로 한 것은 오늘 버시바우 대사께서 말씀하실 이슈 중에 경제 이슈가 틀림 없이 있을 거 같아서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왔다. 오늘 포럼에 대사님을 모셨을 때는 북핵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북핵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한미 간의 관계, 또 남북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사님의 지혜랄까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 모셨는데 초청을 하고 나서 최근의 이슈가 쇠고기 때문에 FTA 그 자체가 아주 힘든 상황에 몰려있어서 어떤 식으로 한국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미국 정부의 노력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대사님을 모셨다.

먼저 대사님 말씀을 듣고 지정토론 두 분 모셔서 말씀을 들겠습니다.

■ 버시바우 대사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소개를 해주신 김정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off the record로 갈 수 있는 유연성을 주셔서 감사하나, 중앙일보는 안 그러나 다른 신문사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on the record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훌륭한 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광재원 소장님과 김주현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활발한 질의 응답 세션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미 동맹’ 및 ‘한미 동맹의 다양한 면’에 대해 발표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오늘이 5월 22일인데 사실 오늘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동맹은 물론이고 한국과 같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와 맺고 있는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적절한 날이라 생각한다. 왜냐면 1947년 5월 22일에 페리 투르먼 전 대통령께서 나중에 투르먼 독트린 이라고 알려진 법에 서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독트린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써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 민주주의 법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면서 트루먼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덕목중의 하나는 결함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결함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이 보여주듯 한국 국민은 지도부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거 같다. 트루먼 대통령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 ‘열기를 견딜 수 없으면 거기서 나가라.’

우리가 그 열기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동맹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4월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가졌을 때 역시 재확인 되었다. 캠프데이비드 이라 한다면 두 지도자가 서로를 잘 알게 되면서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친절하면서도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또한 두 지도자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논의 내용은 역시 내용이 있는 것이었고, 이번 7월에 있을 두 번째 정상회담의 기초 닦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7월에 부시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맹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동북아시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 동맹이 글로벌한 리더십으로 성장했다. 양국이 공통의 가치관과 공통의 관심사항에 의해 뒷받침(지지를) 받고 있다. 21세기 전략적 동맹이라고 부르는 동맹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함께 일하면서 이곳들의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테러와 싸우며 위험한 무기 확산 예방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역시 레바논에도 파병하여 그곳의 상황을 안정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기여에 굉장히 감사하다.

그리고 한국은 가까운 곳에서도 중요한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바로 자연 재해 이후의 미얀마와 중국을 도와준 것이었다. 미얀마와 같은 약재 정권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의 균형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은 오랫동안 한국이 북한을 도운 것에 대해 존경심을 표해왔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단기적인 필요와 개혁과 개방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게 만드는 두 가지 사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

우리가 현재 한국 정부와 함께 최근에 협의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이 있을 때 인도주의적 원조를 북한에 제공할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도울 수 있는 방법 찾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북한과 합의에 이르렀다. 바로 2008년 6월부터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50만톤의 식량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WFP가 40만톤을 제공하고 미국의 NGO들이 10만톤을 제공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NGO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또한 미국의 식량 배급에 있어서 효과적 감시에 대해 합의 했다.

명백히 하고 싶은 것은 식량 원조와 관련된 문제는 6자회담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8월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노력 때문에 미국이 먼저 북한에 제시했던 별도의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월에 우리가 감시단에 대해 합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협상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 정부와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 이후에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내내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한반도에 핵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해 6자회담에서 나타난 2.13합의와 10.4합의에 들어가 있는 2단계를 우리가 여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단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북한은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바로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과 다른 활동에 대한 검증 가능한 명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를 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3단계 및 한반도 비핵화 단계로 빨리 넘어가고 싶다. 그리고 2단계에 가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핵 물질을 회수하고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반도(비핵화)가 진행 될 것이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북한이 제공할 신고를 검증하고, 앞으로도 핵 무기 물질이나 기술 노하우를 제 3국으로 확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검증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주 전에 굉장히 희망적인 조짐이 보였다. 성 김이 북한으로부터 1만 8천 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들고 왔다.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검토 중이고 영변 시설의 기록들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플루토늄 생산 기록들을 담고 있는 문건들이다.

지금 북한으로부터 여전히 정확하고도 완전한 신고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런 지원 문건들은 검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첫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비로써 북한 신고의 정확성을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제출하게 될 때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서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 종료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의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우리도 역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부문에서의 확대뿐만 아니라 양자적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계를 심화시켜 줄 이니셔티브를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아마도 한국 국민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는 부분일 텐데 바로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한국이 가입한다는 MOU에 서명했다. 서명 장소에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뻐다. 왜냐면 양국을 가깝게 만들어 줄 수는데 있어서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믿고 저는 늘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양측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를 다 끝내야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 진다. 부시 대통령께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올해 말에 이 목표를 이루겠다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VWP로 인해 더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VWP 한국 가입을 위해 항공사들이 더 많은 비행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 같다. 그럼에도 상호의 이해를 더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최근에 약 5백 50명의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한국 및 다른 국가들로 보내는 장학금을 발표했다. 외국에 나가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젊은 미국인들이 더욱더 한국을 많이 선택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길 바란다.

한미 FTA라고 한다면 양자관계에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협정으로써 실행만 된다면 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에 지속적인 경제적 기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53년에 맺어진 상호방위조약 만큼이나 중요한 협정이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FTA에 대해서 정상회담 내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했다. 분명 우리가 각각의 의회와 국회에 의해서 비준을 진행시킴에 따라서 정치적인 토론은 굉장히 뜨거워 질수도 있다. 사실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우리가 뜨거운 토론들을 목격해 왔다. 우리는 각각에 국회와 의회가 궁극적으로는 정치를 제쳐두고 사안에 대해 솔직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 더 일찍 비준과정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한국에서 비준되리라 기대한다. 만약 17대 국회에서 되지 않는다면 18대 국회 초반에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비준과 관련해서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의회가 한미 FTA와 그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께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해 올해에 한미 FTA가 비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다. 그리고 미국 재계 역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을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알고 토론을 벌인다면 결국에는 한미 FTA의 비준이 미국 국민의 경제적 안녕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콜리전이라고 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콜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로 한미 FTA를 지지하는 가장 큰 콜리전인데 특히나 정상회담 이후에 콜리전 쪽에서 의회에 굉장히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바로 비준에 필요한 표가 상·하원에 모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표를 다 얻었는데, 단지 도전이 있다면 의회에 한미 FTA를 올리는 것이다. 대선 및 양당이 무역을 둘러싼 분위기를 봤을 때 어렵지 사실 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다.

우리가 지금 양자관계를 확대 심화시키고 있지만, 사실 한미동맹의 초석이라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군사동맹이라 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UN을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분이시고, NATO의 설립으로 이어진 워싱턴 조약을 서명하신 분이랄 수 있다. 나토에서는 제가 예전에 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동맹 관계가 한 국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준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분이시고, 이런 면에서 한미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 양 국가를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이 지역의 안정을 강화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은 양국의 군사동맹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의 전작권 이양하기로 한 합의안은 우리 양국 관계에 있어 큰 진전을 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의 성숙함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한 거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미군들을 세계의 허브라 할 수 있는 평택과 오산, 대구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써 한국 국민들에게 61개의 부지와 군사시설들을 반환하게 된다.

한편으로 양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에 감축계획을 실행시키기 보다는 현재 주한 미군의 수준을 2만 8천 5백 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결정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현재 안보상황에 대한 공통된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결정이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이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지금 지휘 구조나 동맹 안에서 책임을 맡는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미관계는 강력하고 미래는 밝지만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FTA도 비준해야 하고 군도 재배치해야 하며 양국관계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다른 이니셔티브들도 구축해야 한다.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트루먼 독트린에 대해 주장하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전제주의 정권의 씨앗은 고통과 궁핍을 먹고 자란다. 이 씨앗은 빈곤과 싸움이라는 나쁜 땅에서 크고 자란다. 이 씨앗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최대로 자란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살려내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

■ 김정수 국장

오늘 지정토론자가 두 분이 계신다. 한 분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이신, 얼마전까지 KIEP 원장을 맡으셨던 이경태 박사님을 모셨다. 또 한분은 전 국방연구원 원장이셨고 지금은 안보경영연구원의 원장이신 황동준 원장님 모셨다.

■ 이경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한미 FTA에 대한 제 견해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시바우 대사께서 미국 의회에 상정만 되면 비준에 필요한 표는 이미 확보 되었다는 고무적 말씀하셨다. 이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상정되는 것이 큰 도전이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도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쇠고기 문제를 전면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것 때문에 지난 2주일 동안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졌다. 그런데 만약 미국 의회에서 이 한미 FTA가 상정이 안 된다거나 비준이 안 된다면 이

명박 정부가 이번에 겪은 정치적 부담보다도 훨씬 큰 부담 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동안 이야기하길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대단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 측에 희망하고 싶은 것은 미국 의회에 상정을 시키고 비준을 얻기 위해 부시 행정부와 미국의 재계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17대 국회 또는 18대 국회에서 비준시키기 위해 한국의 재계가 총 출동해서 로비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회에 호소를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군 정부와 재계도 이 수준의 또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 의회 활동이 꼭 있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 분위기는 한국 의회 분위기 보다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콜롬비아 FTA의 상정을 봉쇄하면서 무역조정법안을 개정하고 또 심지어 펠로스 의장은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까지도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콜롬비아 FTA를 상정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시간끌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시 정부와 미 재계가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굉장한 대 의회 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버시바우 대사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감사.

■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개인적으로 버시바우 대사에게 감사드린다. 2005년 3월에 국방연구원장을 그만 두고 안보경영연구원을 창설해서 최초 안보경영포럼을 만들고 1회 초청 연사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는 어려운 시기에 3년 동안에 한미 안보 동맹에 기여한 버시바우 대사께 감사드린다.

대사께서 안보 군사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질문만 드리겠다. 한미 군사 안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1세기 한미동맹 차원에서 전반적인 주한미군의 규모, 전작권 환수, 방위비 분담, 주한 미국의 전략적 운영 문제 등등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역할, 협의라고 생각한다.

우선 첫째 한미군사 관련해서 대사께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말씀하셨다. 사실 2004년에 한미미래동맹 구상에서 금년 말까지 2만 5천명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된 사안인데 오히려 전이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최근에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아파치를 아프간으로 이동을 하겠다, 또 일부 정보에 의하면 F16비행을 빼겠다, 미 사단 헤드쿼터를 옮기겠다 등의 이야기들을 보면 과거 우리가 이야기 했던 주한 미군의 전략적 운용성, 물론 한국정부와 협의한다고 하지만, 주한 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대사님의 전망은?

이와 연계해서 지난 3월에 대사님께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43~50%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주한 미군 장교들이 1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3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군의 비용 부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방위비 분담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 다음에 전작권 환수문제를 2012년 4월까지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인수위의 정몽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시위에 나섰고 연기 요청한 바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융통성이 있는 듯 하나 벨 사령관이나 군측에서는 상당히 연기 불가능 강경 입장 보이는 거 같다. 입장이 바뀐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일부 미국에서는 오늘이라도 한국에 전작권 이양을 해줘도 한국군의 능력 등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대사님의 생각은? 혹시 부시 정부에서 재협상 또는 연장에 대

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 현재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으로 남북관계 경색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실용 정부라 하면서 남북관계에서는 상당히 원칙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사님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 버시바우 대사

먼저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워싱턴의 상황이 복잡하긴 하다. 그리고 콜롬비아에 대한 펠로스 의장의 답변이 약간의 대치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사실이나 또한 동시에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토론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황이 유동적이다.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콜롬비아나 한국, 파나마를 포함한 모든 FTA에 대해 딜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 만약에 무역 조정안이나 경기부양책과 콜롬비아, 한국을 묶는 딜을 이뤄낼 수 있겠다. FTA 토대를 굳히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간다면 콜롬비아는 물론이고 한국까지 여기에 묶여서 같이 간다는 점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구티에르즈 장관도 언급하셨다. 구티에르즈 장관도 얼마 전 한국에 오셨는데 한미 FTA가 가장 중요한 FTA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큰 협상이 가능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한국 역시 포함될 것이다.

한국이 이제 쇠고기 합의 문제나 비준에 있어서 먼저 움직임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성공하지 못할까 또한 걱정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비준을 위한 길을 트는데 있어서 정치적 용기 발휘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시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의 하나인 무역 아젠다를 통과 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쇠고기 문제 중요성의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 문제는 수년간 존재했던 문제이고 갑자기 올해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부시 대통령께서 FTA에 서명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은 한국 정부, 예전 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쇠고기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행정부 기간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미국의 몇몇 주요 상원 의원들은 비준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 하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미국이 한미 FTA협상 기간 중에 쌀 시장이 FTA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그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정치적 현실이듯이 쇠고기 문제도 미국의 정치적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상호가 이런 서로의 정치적 민감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진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황 박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2만 8천 5백명으로 군 숫자를 유지하고 알파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들께서 숫자나 구성에 대한 협의 할 것이다.

사실 언론에 있었던 정보 유출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으나 알파치 헬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물론 올해 말쯤 되면 이를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 있어서 군수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 전에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아파치 헬기가 재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능력이나 숫자에 대한 고려에 대한 협의가 있을 후에 있을 거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련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은 양국이 동등하게 부담해야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달 정도에 협상을 시작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다. 그 때가 되면 MPSC에 대해 한국 측이 좀 더 많이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현재 SMA를 보면 미국의 병력 부담에 있어 아주 작은 부분만 들어가 있다.

지금 현재 가족 없이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3년 동안 가족 동반 근무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벨 사령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 했던 사안이다. 저 역시 적극적 지지하는 바다. 사실 아직까지 한국이 전투·전쟁지역으로 간주되는 것은 약간 이상한 현상인 거 같다. 왜냐하면 냉전이 한참일 때도 독일과 북유럽 국가에 가족을 동반해서 미군들이 파병되고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을 동반하는 일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될 거 같다. 그리고 이는 미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건강한 것이 될 것이다. 군, 군인들의 가족 정상화가 향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는 분단국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단지 정책적 문제이다. 물론 전반적인 비용에 있어서 어떻게 약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학교도 더 크게 지어야하고 아파트도 더 많이 지어야 하니까 전반적인 비용이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지 미국 쪽에서 SMA 협상에서 입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이런 것을 고안해 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넌센스다.

전작권 이양에 말씀드리자면, 재협상 즉 계획이나 시기에 있어서 재협상이 필요가 없다는데 있어서 미국 정부와 기관들의 입장은 연합되어 있고 공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 2012년까지로 시기를 조정할 거 자체가 원만한 이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둔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훈련을 할 수 있고 감시기능도 높일 수 있으며 전략적인 본부를 또한 구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역지력이나 방위력에 있어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부드러운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이미 이 계획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란 2012년까지 여전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것이 안 왔으면 좋겠으나 이미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까지도 담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이양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것도 담겨있다. 우리 양국은 서로가 좋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는 재협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하셨는데, 북한 지도부는 통상적으로 하듯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 같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시험 중이다 라고 생각한다. 선전 캠페인과 인신공격으로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결국에는 남북 간 협력이 있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곧 북한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한다는 새로운 현실에 조정해 나가고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익숙해 져야 되는 부분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가 최우선 순위이고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데 있어서 선결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의 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이나 여타 공산주의 국가에서 성공했던 변화가 북한에서도 일어나기 위해, 북한에서도 이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계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듣기로 북한은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지만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를 생각해 내야하고 어쨌거나 개혁이나 개방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

■ 김진현 효성 고문

성 김이 핵 관련 문서를 갖고 온 것과 향후 핵 해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식량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국가 통제에 대한 견해 부탁.

■ 버시바우 대사

성 김이 갖고 온 문건은 지난 22년간 영변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 생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우라늄은 싱가포르에 있었던 별도의 과정에 의해 다뤄지고 있다. 우리 생각에는 북한쪽에서 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미국에서 갖고 있는 우려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라늄과 관련된 장비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응을 보였다. 사실 기존 무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제가 잘 모른다. 현재 플루토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곧 무기 수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해야할 거다. 그러나 어떻게 정확하게 신고 되고 처리될지는 잘 모른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자면, 지금 식량 배급을 모니터 하기 위해서 NGO나 WFP 관리들을 북한이 허용하겠다고 합의했었다. 이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면 지난 가을에 미국에서 처음 제시했을 때 북한은 거절 했다. 왜냐면 감독관의 숫자를 합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다른 말도 안되는 조건들도 제안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감시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국말 할 줄 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이 언론을 통해 식량을 부족하다고 시인한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을 통해서 자국이 식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득하는 것은 힘든 것

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외세를 비난하거나 외국에서 공급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북한의 경제정책 때문에 식량 부족과 영양 부족이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외세를 비난했었다.

통제력이 조금 약화 됐다라던지 상실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거 같다. 하지만 주문들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제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고 말하기는 힘드나 공개적 발언을 통해 볼 때 불안감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 김은중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처장

개성공단 내 원산지 문제가 한미FTA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와 연결되어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력물자 반출입문제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는지.

■ 버시바우 대사

사실 FTA때 균형 있는 해법을 우리가 찾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지역을 미래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안이었다.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로 핵 프로세스가 진전된다고 해서 그것이 역외가공지역을 논의할 시간이 왔다, 시기가 왔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다. 다른 비핵화나 투명성이나 북한 근로자 권리의 보호나 인권상황의 개선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우리가 목격해야 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보기 전까지 의회에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지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KT와 관련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결정을 해줬었는데 개성공단에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미국 수출당국이 허락을 했었다. 물론 하드웨어상 조정 문제가 있었긴 하나 긍정적인 사례라고 들었다.

■ 장달중 서울대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준 캐치플레이즈가 한미동맹관계 복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한미관계가 어떤 점이 문제였고 지난 몇 년 동안 한미관계가 해체된 것인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면으로 고쳐야 하는지 생각하는지.

■ 버시바우 대사

자주 저는 굉장히 한미동맹이 견고함과 힘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물론 북한과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같이 변화를 이뤄내자 라고 생각한다. 결국엔 주요 사안, 예를 들어 저작권 이양이나 캠프 반환이나 여러 가지 훈련시설들, 2006년 발표되었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부족했던 것은 최고위급 간의 신뢰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의 새 정부와 더불어서 양국 간의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의견의 통합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